

## 2020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, 45.8만가구로 2013년(44.0만가구) 이후 7년만에 최저

- 특히 서울은 5.8만 가구로 2009년(3.6만가구)이후 11년 만에 최저치
-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7년(11.3만가구)에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수준

##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재확인...향후 3~4년간 주택 공급 부족, 집값 불안 예고

- 주택인허가 물량 감소 통계는 왜 그동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만 전세대란에 시달려야 하는지를 입증
- 아파트가 사업 인허가를 받아 입주 때까지 3~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, 최근 3년간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향후 공급부족 및 가격불안은 불가피
- 최근 3년간(2018~2020년)중 주택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50.0만 가구로 직전 3년(2015~2017년)의 71.5만 가구 대비 20만가구 이상 감소

## 서울 주택인허가 11년만에 최저...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재확인

단위: 만가구



출처: 국토교통부